

#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직업만족도

-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비교 -

## Family Stress, Coping Strategy, and Job Satisfaction in Dual-earner Couples

- Comparison of Husband and Wife in Dual-earner Couples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최정혜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Choi, Jeong-Hye

###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family stress, coping strategy, and job satisfaction in dual-earner coupl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0 dual-earner couples, 300 people, in the Kyeongnam Area, Korea.

The major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degree of family stress of the husband and wife in dual-earner couples was 2.74 and 2.98, respectively, on a scale of 0-5.0. The most stressful event arose from their role as parents caring for their children. The significant variables were religion and the type of expended family in dual-earner couples' husband, and the age of the first child, job, economic level, conjugal period, and marital satisfaction in dual-earner couples' wife.

2) The coping strategy of family stress of the husband and wife in dual-earner couples was 3.41 and 3.45, respectively, on a scale of 0-5.0. Among the strategies, the 'cognitive restructuring' scored highest. The significant variables were religion, the degree of educational level, job, marital satisfaction, and self-esteem in dual-earner couples' husband, and economic level, the type of expended family, marital satisfaction, and self-esteem in dual-earner couples' wife.

Corresponding Author: Jeong-Hye, Choi,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principal researcher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900 Gazwa-dong, Jinju, 660-701, Korea Tel: 82-55-751-5639 Fax: 82-55-756-5637 E-mail: jhchoi7@nongae.gsnu.ac.kr

3)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of the husband and wife in dual-earner couples was 3.72 and 3.89, respectively, on a scale of 0-5.0. The most effective variables of job satisfaction of the husband and wife in dual-earner couples was self-esteem and cognitive restructuring strategy, respectively.

**주제어(Key Words):** 맞벌이부부(dual-earner couple), 가족스트레스(family stress), 대처전략(coping strategy), 직업만족도(Job satisfaction)

## 1. 서론

오늘날 산업화의 영향으로 많은 여성들이 직업세계에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교육 기회가 증대되면서 여성의 취업 및 기혼여성의 취업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맞벌이가족은 우리사회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김혜신, 김경신, 2003; 중앙일보 2003. 12.3).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전체 여성취업자 중 78%가 기혼여성인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04) 앞으로 맞벌이부부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측할 수 있으며, 맞벌이가족 문제는 이제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 맞벌이가족의 경우 아내의 경제활동은 자신의 자아 실현은 물론 사회적인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가 오랫동안 여성에게 부여해 온 역할은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직장인인 동시에 여전히 '주부' 역할을 겸하도록 기대하기 때문에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와 달리 역할갈등, 시간갈등 등을 경험하게 되고, 취업주부가 겪는 갈등은 자신뿐 만 아니라 가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채로, 이기영, 2004).

취업주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직업과 가사부담을 병행하는데 따른 시간의 부족 문제로서 이는 맞벌이 부부에게 가족관련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김혜신 외, 2003). 취업주부의 역할과중, 직장과 가정일 사이의 갈등은 취업주부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김경신, 권오남, 1996; 조희금, 1999; 채로, 이기영, 2004)있으며, 또한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보다 가정생활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전영자, 1997; 채로, 이기영, 2004) 맞벌이가족의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양성평등 인식의 확산으로 남성의 가족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의 대표적 역할인 '부양자'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은 감소하고 부모로서의 '양육자' 역할, 남편으로서의 '배우자' 역할이 점

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김소영, 옥선화, 2000). 즉 남편의 역할은 직업과 가족, 두 영역에서의 경험이 공유되고 상호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지면서(김태현, 김양호, 2003; 홍성례, 유영주, 2001; Barnett, Marshall, Peck, 1992; O' Neal & Greenberger, 1994) 남성의 직업역할과 가족역할 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태현, 김양호, 2003; 홍성례, 유영주, 2001). 그러나 남성들의 실제 아버지 역할수행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김소영 외, 2000; 김태현, 김양호, 2003), 맞벌이남편의 가족 역할수행의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 역할갈등 등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나 대처전략, 직업만족도 등을 연계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맞벌이부부 중 한쪽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맞벌이 가족의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맞벌이부부 양쪽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족스트레스 정도와 대처전략 그리고 직업만족도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정도와 대처전략 그리고 직업만족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맞벌이부부의 가족생활실태를 규명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는 부부별로 어떠한가, 관련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은 부부별로 어떠한가, 관련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맞벌이부부의 직업만족도는 부부별로

어떠하며, 직업만족도를 가장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관련변인

맞벌이가족은 사회적 통념상 일반부부 가족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되고 있으며(김경신, 권오남, 1996; 김양호, 김태현, 1998; 김혜신, 김경신, 2003; 채로, 이기영, 2004), 그 중에서도 맞벌이부부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녀가 있는 취업주부의 경우 배우자, 직업인, 부모라는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며 이로 인한 역할갈등은 필연적이다(전영자, 1997; 김혜신 외, 2003; Beutell & Greenhaus, 1983). 본 연구에서 역할갈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원으로 보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역할갈등의 영역을 부부역할, 가사 관련역할, 부모역할, 성인자녀역할의 4영역으로 보면서, 총체적 가족스트레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맞벌이가족에 관련된 선행연구(구혜령, 1991; 김경신, 김오남, 1996; 전영자, 1997)에서 취업여성들은 가정 내의 역할 때문에 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주부는 자신의 직업을 가족에 중속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역할긴장과 직업스트레스가 가중되며, 이런 경향은 맞벌이남편 역시 같은 경향으로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김양호, 김태현, 1998; 김태현, 김양호, 2003; 서혜영, 이숙현, 1999; 한경혜, 1998). 전영자(1997)의 연구에서 취업주부는 부모역할, 직업역할, 부부역할 순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관련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맞벌이남편 역시 자녀양육과 가사영역에서 높은 역할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김경신, 김오남, 1996; 서혜영, 이숙현, 1999) 가족스트레스를 시사한다. 맞벌이남편과 아내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가족스트레스의 관련변인들을 살펴보면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에 유의한 변인은 교육수준, 가사조력자의 유무, 남편의 지지, 직종, 근무시간, 취업동기, 직업만족도, 부인의 직업직위, 성역할 태도, 근무시간의 융통

성, 사회적인 지원 등으로 보고된 바 있다(구혜령, 1991; 전영자, 1997; 최규련, 1994; 한경혜, 1998). 또 맞벌이남편의 역할갈등에 간접적인 영향변인은 소득, 막내자녀 연령, 남성의 성역할 태도 등으로 밝혀졌다(김소영, 옥선화, 2000; 김양호, 김태현, 1998; 김혜신, 김경신, 2003).

한편 결혼만족은 가족의 전반적인 기능상태를 반영해 준다는 Olson 등(양순미, 2003, 재인용)의 주장이나 부부관계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부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라는 Kenny(양순미, 2003, 재인용)의 연구 등을 고려해 볼 때 가족스트레스의 관련 변인으로 결혼만족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취업부인이 비 취업부인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다(고정자와, 1997; Thomas et al., 1984)는 결과를 보고한바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관심을 측정하는 것으로(Rosenberg, 1979; 최정혜, 2004, 재인용) 가족긴강성과 정적인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어은주, 유영주, 1997; 최규련 1994; 유영주, 2001) 가족스트레스의 관련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고려하였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취업주부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며(Ferree, 1976) 심리적 디스트레스 점수가 낮게 나타나(전영자, 1997)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2.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과 관련변인

대처행동은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하는 개인의 다양한 행동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며 내적전략과 외적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내적전략에는 스트레스 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도전으로 정의하는 재구조화 전략과 스트레스를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될 어떤 것으로 정의하는 수동적 평가 전략이 있고, 외적전략에는 확대가족원, 친구, 이웃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체계 획득전략, 정신적 지원 찾기 전략,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발견하는 전략 등이 포함된다(Olson et al., 1983; 재인용, 최정혜, 2004).

맞벌이부부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대처행동은 타협이며, 특히 취업주부는 중다 역할요구가 있는 경우 직업과 타협하게 된다(Heckman, et

al., 1977). 최규련(1994)은 갈등 대처방안으로 외부 도움 요청, 신앙에 의지, 이성적 대처, 감정표출, 행동표출, 회피의 6개영역 중 '이성적 대처방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고, 전영자(1997)는 역할감소,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 인지재구조화, 가족체계재구조화, 역할 간 상황 수정 등의 6가지 중 '인지재구조화' 대처방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남편은 주로 이성적, 행동표출 유형을 취하고, 부인은 방어적 갈등 대처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자, 1991; 최규련, 1994; 최혜경, 노치영, 1994).

맞벌이주부의 갈등 대처행동은 부부의 연령, 학력, 종교, 직업 그리고 가족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이현주, 1997; 전영자, 1997) 학력, 직업, 소득 등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문제 상황에 효율적인 행동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 1997; 최혜경, 노치영, 1994). 맞벌이부부의 스트레스 대처는 중다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완전한 대처방안은 존재하지 않음(McCubbin & Patterson, 1983)을 알 수 있으며,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결혼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나(Ferree, 1976; Thomas, et. al., 1984) 이들 변인이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에서도 어떤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3. 맞벌이부부의 직업만족도

본 연구에 사용된 맞벌이부부의 직업만족도란 맞벌이부부 개인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직업생활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직업만족도는 결혼만족이나 생활만족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직업만족도는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 활동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정생활도 만족하는 정도가 높고, 직업 활동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가정생활역시 불만족 비율이 높은 편이며, 직업에 만족하는 경우 결혼만족이나 생활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신, 김오남, 1996; 서혜영, 이숙현, 1999; 홍성례, 유영주, 2001; Pleck, 1985; Galambos & Sibereisen, 1989). 맞벌이아내는 직업노동시간보다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생활만족의 중요 변수임이 밝혀졌으며(한경미, 1995), 직업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많은 학

자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Barnett, Marshall, & Singer, 1992; Kelly & Voydanoff, 1985). 특히 남성에게는 가족역할이 이차적인 반면 직업역할이 정신건강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고, 여성은 이와 반대로 직업역할은 이차적인 반면 가족역할이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Barnett & Baruch, 1987; 김태현, 김양호, 2003 재인용).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남지역의 맞벌이부부이다. 예비조사는 2003년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2주 동안 맞벌이부부 30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 수정한 설문지로 2003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경남지역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하여 200쌍에게 배포되었으며, 회수된 질문지 170쌍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150쌍 총 300명이 최종분석대상이 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맞벌이부부의 연령은 남편은 40대가 가장 많고(58.7%) 아내는 30대가 가장 많은 것(52.0%)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 남편(84%)과 아내(76%)의 교육수준은 대학졸업이 상이 모두 과반수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연구대상자의 높은 학력수준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이 교사 등의 전문직에 치중된 까닭으로 보인다. 맞벌이부부 남편의 종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많으며, 아내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맞벌이부부의 자녀수는 2명이 가장 많고(72.7%), 맏이의 연령은 초등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1.3%).

맞벌이부부의 직업은 남편과 아내 모두 교사직이 가장 많고(50.0%, 76.7%), 그 다음으로 남편은 생산·판매·서비스직(18.7%), 사무직·공무원(14.0%)순이고, 아내는 생산·판매·서비스직(13.3%), 사무직·공무원(6.0%)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수입 정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 사이가 가장 많고(30.0%), 다음으로 3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26.7%), 400만원에서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구 분		남편(150)	아내(150)	전체(300)	구 분		전체(300)
연 령	30대	47(31.3)	78(52.0)	125(41.7)	자녀수	1명	50(16.7)
	40대	88(58.7)	65(43.3)	153(51.0)		2명	218(72.7)
	50대	15(10.0)	7( 4.7)	22( 7.3)		3명 이상	32(10.7)
교육수준	고졸	21(14.0)	22(14.7)	43(14.3)	연 령	만이 7세이하	40(13.3)
	전문대졸	3( 2.0)	14( 9.3)	17( 5.7)		초등생	124(41.3)
	대학졸	75(50.0)	105(70.0)	180(60.0)		중·고생	88(29.4)
	대학원졸	51(34.0)	9( 6.0)	60(20.0)		대학생 이상	48(16.0)
종교유무	없음	79(52.7)	55(36.7)	134(44.7)	가사도움 유무	없다	206(68.7)
	있음	71(47.3)	95(63.3)	166(55.3)		있다	94(31.3)
직 업	교수·전문직	8( 5.3)	6( 4.0)	14( 4.7)	가사를 도우는 사람	고용인	32(34.1)
	교사	75(50.0)	115(76.7)	190(63.3)		남편부모	28(29.7)
	관리직(과장이상)	18(12.0)		18( 6.0)		아내부모	32(34.1)
	사무직·공무원	21(14.0)	9( 6.0)	30(10.0)		기타	2( 2.1)
	생산·판매·서비스직	28(18.7)	20(13.3)	48(16.0)			
가정의 월수입 정도	200만원 미만			22( 7.3)	가족형태	확대가족 핵가족	50(17.3) 250(82.7)
	200-300만원 미만			90(30.0)			
	300-400만원 미만			80(26.7)			
	400-500만원 미만			72(24.0)			
	500만원 이상			36(12.0)			
결혼 지속 년수	5년 미만			22( 7.3)	확대가족 유형	남편부모와 동거 아내부모와 동거	36(69.2) 16(30.8)
	5-10년 미만			38(12.7)			
	10-15년 미만			122(40.7)			
	15-20년 미만			72(24.0)			
	20년 이상			46(15.3)			

500만원 미만(24.0%) 순으로 나타나 맞벌이부부의 월수입정도가 300만원 이상에 과반수이상의 분포를 보였다. 결혼지속년수는 10년-15년 미만 사이가 가장 많고(40.7%), 그다음은 15-20년 미만(24.0%), 20년 이상(15.3%) 순으로 나타나 결혼생활이 10년 이상인 맞벌이 부부가 전체의 4/5 정도로 나타났다. '가사 조력자'가 있는 경우가 약 1/3정도(31.3%)로 나타났으며, '가사 조력자'는 '고용인'과 '친정부모'가 같은 비율로 가장 많고(34.1%), 그 다음이 '시부모'(29.7%)순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부부의 가사조력은 시부모보다 친정부모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부부의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대부분이고(82.7%), 확대가족은 17.3%에 불과하다. 확대가족은 남편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아내부모와 동거하는 비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확대가족의 경우 아직도 남편부모와 동거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

구대상자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맞벌이가족(저소득, 저학력, 1차산업, 생산판매직 등)에 비해서 교사·연구직이 많아 연구대상자의 직업 여건이 좋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배경을 알아보는 일반 문항과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척도,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척도, 직업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내용 및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가족스트레스 척도는 최정혜(2002)의 척도를 이용하여 부부역할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가사 관련 스트레스, 성인자녀역할 스트레스 등 4개영역, 총 18문항의 가족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가족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91이다. 대처전략 척도는 최정혜(2002)의 척도를 사용하여 예비조사를 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5요인(인지 재구조화, 취미활동, 역할분담, 관리활동, 정서적 지원) 총 17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그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82이다.

직업만족도 척도는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자가 직접 만들었다. 척도는 5점 Likert척도로서 직업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묻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84이다. 결혼만족도 척도는 슝(Schumm)과 그의 동료들이 제작한 KMSS척도를 연구에 적용한 최정혜(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로서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묻는 3문항으로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까지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Cronbach'  $\alpha$ =.96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genberg와 Krause & Tran의 척도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하여 만든 최정혜의 척도(2002)를 사용하였다. 총 4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으며,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주는 리커트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체 4문항 중에서 2문항은 긍정적인 문항을 사용하고 2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통계처리 시 역산하여 점수를 내었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75이다.

###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신뢰도, 평균, 요인분석, paired t-test, t-test, 일원변량분석, Duncan Multiple Range Test, 상관관계,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 및 관련변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맞벌이부부의 남편의 가족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74, 아내는 2.98로 중간점인 3점 보다 낮은 점수로 나타나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총체적 가족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맞벌이부부 형태가 가족생활에 그다지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생활유형으로 볼 수 있고, 둘째는 연구대상자들의 직업이 교수·전문직과 교사 등이 주류를 이루어,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 맞벌이부부 아내가 남편보다 총체적 가족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p<.01$ ) 가족생활에서 남편에 비해 역할부담감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김경신, 권오남, 1996; 조희금, 1999; 채로외, 2004)에서 취업아내가 남편보다 갈등이 더 많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자녀역할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가사관련 스트레스'와 '부부역할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반면 아내는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가사관련 스트레스'가 똑같이 높게 나타나고, '자녀역할 스트레스'와 '부부역할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즉 맞벌이남편과 아내 모두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느끼고

<표 2>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 정도 (N=150쌍)

구 분	남편(150)		아내(150)		paired t-test
	M	SD	M	SD	
전체 스트레스	2.74	(.67)	2.97	(.70)	3.86**
부부역할 스트레스	2.56	(.76)	2.68	(.78)	1.73
가사관련 스트레스	2.70	(.82)	3.18	(.91)	5.64***
부모역할 스트레스	2.87	(.83)	3.18	(.84)	4.11***
자녀역할 스트레스	2.81	(.83)	2.85	(.74)	.45

\*\* $p<.01$ , \*\*\* $p<.001$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가족의 가장 큰 단점이 자녀양육이라고 밝힌 선행연구(김소영 외, 2000; 김혜신 외, 2003; 전영자, 1997)를 지지하는 경향이다.

부부간에 인식차이를 보인 것은 남편은 부모에 대한 '자녀역할 스트레스'를 두 번째 순위로 인식한데 비해 아내는 '가사관련 스트레스'를 두 번째 순위로 인식한 점이다. 한편 부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가사관련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이 두 영역 모두 아내가 남편보다 스트레스를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아내의 가족역할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리고 부부역할과 자녀역할 스트레스는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에 유의한 관련변인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편은 종교( $p < .05$ )와 확대가족 유형( $p < .05$ )이, 아내는 만이의 연령( $p < .05$ ), 직업( $p < .05$ ), 가정의 월수입 정도( $p < .05$ ), 결혼지속년수( $p < .05$ ), 결혼만족도( $p < .01$ ) 등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부부 남편은 종교가 없을 때 그리고 아내부모와 함께 살 때 가족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부부 아내는 만이의 연령이 초등학교생일 때, 직업이 생산·판매·서비스직일 때, 가정의 월수입정도가 200만 원이하 일 때, 결혼지속년수가 10년-15년미만 사이일 때, 결혼만족도가 낮은 집단일 때 가족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관련변인

맞벌이부부가 가족스트레스에 대해 어떤 대처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요인분석한 결과 5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지재구조화, 역할분담, 관리활동, 정서적 지원, 취미활동 등으로 나타났으며, KMO (Kaiser-Meyer-Olkin) 측도 값이 높고(0.6 이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깊어서 요인분석 조건을 충족함을 보여준다.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맞벌이부부의 총체적인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정도는 5

점 만점에 남편이 평균 3.41, 아내는 3.45로 나타나 대처전략 사용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부부간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남편은 '인지재구조화' 전략이 가장 높고, 다음이 '역할분담', '취미활동', '관리활동', '정서적 지원' 순으로 나타나 맞벌이 남편은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있어 '인지재구조화'를 가장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김명자, 1991; 최규련, 1994; 최혜경, 노치영, 1994)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아내는 '인지재구조화', '역할분담', '관리활동', '정서적 지원', '취미활동' 순으로 나타나 맞벌이아내 역시 '인지재구조화' 전략을 가장 높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이현주, 1997; 전영자, 1997)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본 연구결과 맞벌이남편과 아내 모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전략이 '인지재구조화'로 나타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맞벌이부부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가족을 이끌어 가야 하므로 가족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맞벌이남편과 아내에게 두 번째로 나타난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역할분담' 전략으로 맞벌이부부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족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겠다. 이는 선행연구(김경신 외, 1996; 서혜영 외, 1999)에서 맞벌이부부가 주말이 되면 주중에 처리하지 못하고 밀어두었던 가사노동을 가족과 함께 분담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영역별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에서 부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난 것은 '정서적 지원'과 '취미활동' 전략이다. '정서적 지원' 전략은 맞벌이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높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내의 경우 친구, 이웃으로부터 정신적 지원을 찾는 경향이 남편보다 높은 경향으로 해석된다. 본 결과는 한국적 상황에서 가부장적인 문화에 젖어있는 남편이 아내에 비해 '정서적 지원' 전략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으며 아내는 남편보다 정서적 지원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선행연구(최규련, 1994)와 일치하는 경향이

〈표 3〉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련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N=150쌍)

관련 변인		남편(150)				아내(150)				
		N	M	F(t)	D	N	M	F(t)	D	
연 령	30대	47	2.74	.19		78	3.09	2.10		
	40대	88	2.75			65	2.85			
	50대	15	2.63			7	2.92			
교육수준	고졸	21	2.90	2.27		22	3.10	.57		
	전문대졸	3	2.22			14	2.81			
	대학졸	75	2.81			105	2.98			
	대학원졸	51	2.58			9	2.87			
종교유무	없음	79	2.85	2.13*		55	3.03	.75		
	있음	71	2.61			95	2.94			
자녀수	1명	25	2.69	.29		25	2.81	1.68		
	2명	109	2.73			109	2.98			
	3명	16	2.85			16	3.22			
말이연령	7세이하	20	2.79	.86		20	2.84	3.48	B	
	초등학생	62	2.83			62	3.18		*	B
	중·고생	44	2.64			44	2.79			A
	대학생 이상	24	2.65			24	2.89			B
직 업	교수·전문직	8	2.26	1.44		6	2.20	3.22	A	
	교사	75	2.71			115	2.98		*	B
	관리직(과장이상)	18	2.86			9	2.97			B
	사무직·공무원	21	2.75			20	3.19			B
	생산·판매·서비스직	28	2.86							
가정 월수입 정도	200만원 미만	11	2.94	1.17		11	3.39	2.50	B	
	200-300만원 미만	45	2.72			45	3.04		*	B
	300-400만원 미만	40	2.84			40	2.95			B
	400-500만원 미만	36	2.71			36	2.97			B
	500만원 이상	18	2.49			18	2.59			A
가족형태	확대가족	25	2.74	.05		25	2.84	-1.22		
	핵가족	125	2.73			125	3.00			
확대가족유형	남편부모와	18	2.48	-5.21**		18	2.74	-1.41		
	아내부모와	8	3.32			8	3.07			
가사조력자	없다	103	2.72	-.32		103	2.98	.21		
	있다	47	2.76			47	2.96			
결혼지속년수	5년미만	11	2.91	.55		11	2.88	2.85	A	
	5-10년 미만	19	2.66			19	3.14		*	A
	10-15년 미만	61	2.79			61	3.15			A
	15-20년 미만	36	2.68			36	2.72			A
	20년 이상	23	2.64			23	2.82			A
결혼만족도	높은 집단	106	2.70	-1.07		87	2.76	-4.97**		
	낮은 집단	44	2.83			63	3.28			
자아존중감	높은 집단	66	2.70	-.58		60	2.93	-.61		
	낮은 집단	84	2.76			90	3.00			

\*p&lt;.05, \*\*p&lt;.01.

〈표 4〉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대한 요인분석 (N=300)

문항 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h <sup>2</sup>
36	.263	<b>.696</b>	.020	.020	.010	.563
37	-.111	<b>.690</b>	.104	.010	.180	.532
38	.260	.128	.234	.160	<b>.467</b>	.383
39	-.020	.020	<b>.890</b>	.136	.010	.825
40	-.020	-.020	.123	<b>.775</b>	.107	.630
41	.367	<b>.556</b>	.020	.229	-.010	.501
42	.253	<b>.492</b>	.237	-.259	.205	.471
43	<b>.692</b>	.138	.150	.128	.108	.549
44	.182	.158	.020	<b>.795</b>	.020	.698
45	<b>.530</b>	.450	-.020	.285	-.010	.572
46	<b>.784</b>	.134	.020	-.020	.010	.640
47	.107	.156	<b>.881</b>	.010	.030	.816
48	.327	<b>.509</b>	.020	.020	.356	.503
49	<b>.780</b>	.020	-.020	-.010	.250	.680
50	<b>.575</b>	.242	.101	.295	.131	.504
51	.350	-.168	-.101	.407	<b>.566</b>	.647
52	-.030	.322	-.020	-.020	<b>.755</b>	.681
고유치 누가변량 (%)	4.722 27.78	1.767 38.17	1.552 47.30	1.151 54.07	1.000 59.96	
KMO						.79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						.000

요인1: 인지 재구조화, 요인2: 역할분담, 요인3: 관리활동, 요인4: 정서적 지원, 요인5: 취미활동. (문항은 부록참조).

〈표 5〉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정도 (N=150쌍)

구 분	남편(150)		아내(150)		paired t-test
	M	SD	M	SD	
전 체	3.42	.52	3.45	.44	.78
인지 재구조화	3.89	.53	3.98	.46	1.98*
역할분담	3.55	.71	3.52	.71	.38
관리활동	3.12	.70	3.18	.67	.88
정서적 지원	2.60	.95	3.01	.93	4.50***
취미활동	3.14	.99	2.76	.97	4.04***

\*\*\*p<.001

다. '취미활동' 전략은 맞벌이남편이 아내보다 훨씬 높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편이 직장을 중심으로 가족보다는 바깥을 선호하고 활동하는 한

국적 상황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즉 남편의 경우 가족스트레스 상황이 생기면 일단 바깥으로 나가는 생활양식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며, 아내의 경우는 직장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취미생활이라는 여유는 거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울러 본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갈등대처방법으로 남편은 행동표출을, 부인은 외부도움요청과 신앙에 의지한다는 연구(이현주, 1997)와 일치하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유의한 차이를 주는 관련변인은 〈표 6〉과 같다. 맞벌이부부 남편은 교육수준(P<.001), 직업(P<.001), 결혼만족도(P<.001), 자아존중감(P<.001) 등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아내는 가정의 월수입 정도(P<.001), 확대가족 유형(P<.05), 결혼만족도(P<.001), 자아존중감(P<.001) 등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부부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정도가 높고 직업이 생산·판매·서비스직이 아닐 경우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각각 낮은 집단보다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월수입정도가 300만원 이상 집단이 그 미만 집단보다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이 더 높고, 아내가 친정부모보다 남편부모와 함께 살 때 대처전략 사용이 더 높았으며,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각각 낮은 집단보다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직업만족도 및 관련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직업만족도 및 관련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7〉, 〈표 8〉과 같다. 맞벌이부부 남편의 직업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2, 아내는 3.89로 나타나 중간 점수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직업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맞벌이아내가 남편보다 직업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본 결과는 맞벌이아내가 직장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직업에 대

〈표 6〉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련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N=150쌍)

관련 변인		남편(150)				아내(150)			
		N	M	F(t)	D	N	M	F(t)	D
연 령	30대	47	3.46			78	3.48		
	40대	88	3.40	.32		65	3.42	.38	
	50대	15	3.35			7	3.40		
교육수준	고졸	21	3.05		A	22	3.44		
	전문대졸	3	3.27	***	B	14	3.28		
	대학졸	75	3.35	9.35	B	105	3.47	.76	
	대학원졸	51	3.67		B	9	3.48		
종교유무	없음	79	3.40			55	3.48		
	있음	71	3.42	-.23		95	3.43	.56	
자녀수	1명	25	3.42			25	3.38		
	2명	109	3.43	.40		109	3.47	.55	
	3명	16	3.31			16	3.41		
말이연령	7세이하	20	3.49			20	3.48		
	초등학생	62	3.40			62	3.40		
	중·고생	44	3.37	.33		44	3.49	.48	
	대학생 이상	24	3.45			24	3.47		
직 업	교수·전문직	8	3.57		B	6	3.72		
	교사	75	3.51	***	B	115	3.45		
	관리직(과장이상)	18	3.38	5.11	B			.95	
	사무직·공무원	21	3.52		B	9	3.44		
	생산·판매·서비스직	28	3.05		A	20	3.37		
가정 월수입 정도	200만원 미만	11	3.25			11	3.39		A
	200-300만원 미만	45	3.24			45	3.36	**	A
	300-400만원 미만	40	3.47	2.39		40	3.35	3.20	A
	400-500만원 미만	36	3.52			36	3.59		B
	500만원 이상	18	3.57			18	3.66		B
가족형태	확대가족	25	3.38			25	3.37		
	핵가족	125	3.42	-.44		125	3.46	-1.16	
확대가족유형	남편부모와	18	3.46			18	3.45		
	아내부모와	8	3.18	1.54		8	3.19	2.23*	
가사조력자	없다	103	3.41			103	3.47		
	있다	47	3.43	-.25		47	3.41	.81	
결혼지속년수	5년 미만	11	3.50			11	3.35		
	5-10년 미만	19	3.48			19	3.44		
	10-15년 미만	61	3.40	.18		61	3.45	.27	
	15-20년 미만	36	3.39			36	3.50		
	20년 이상	23	3.41			23	3.43		
결혼만족도	높은 집단	106	3.52			87	3.56		
	낮은 집단	44	3.16	3.88***		63	3.29	4.00***	
자아존중감	높은 집단	66	3.62			60	3.61		
	낮은 집단	84	3.25	4.52***		90	3.34	3.87***	

\*\*p&lt;.01, \*\*\*p&lt;.001

〈표 7〉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직업만족도 (N=150쌍)

구 분	M	SD	백분위 점수	paired t-test
남편의 직업만족도	3.72	.82	74.4	2.20*
아내의 직업만족도	3.89	.65	77.8	

\*p<.05

한 만족을 높게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선행 연구(김경신, 김오남, 1996; 서혜영, 이숙현, 1999; 홍성래, 유영주, 2001; Pleck, 1985; Galambos & Sibereisen, 1989)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직업만족도에 유의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직업만족도에 관련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00~.68의 상관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직업만족도에 유의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별 투입 방식(stepwise)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귀가정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편은 Durbin-Watson 계수가 1.961이고 아내는 2.064로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회귀식이 회귀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 남편의 직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beta=.341$ )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역할분담 대처전략, 직업 순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부부 남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역할분담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직업이 전문직일 때 직업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들 3 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맞벌이부부 남편의 직업만족도는 36%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 아내의 직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지재구조화 대처전략( $\beta=.341$ )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교육수준, 역할분담,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부부 아내의 인지재구조화 대처전략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역할분담 대처전략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았으며 이 네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맞벌이부부 남편의 직업만족도에는 자아존중감이, 아내의 직업만족도에는 인지재구조화 대처전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부부의 직업만족도 영향변인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변화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부부의 가족생활에 대해 실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대처전략이 어떠한지, 그리고 직업만족도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남지역의 맞벌이부부 150쌍, 총 3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표 8〉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직업만족도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

(N=150쌍)

변 인	남편(N=150)			변 인	아내(N=150)		
	B	$\beta$	R <sup>2</sup>		B	$\beta$	R <sup>2</sup>
자아존중감	.418	.341	.213	인지재구조화	.481	.341	.216
역할분담	.313	.272	.301	교육수준	.160	.198	.270
직업	-.157	-.244	.356	역할분담	.166	.183	.303
				자아존중감	.183	.172	.329
상수		1.489		상수		1.279	
F		26.933***		F		17.737***	
R <sup>2</sup>		.356		R <sup>2</sup>		.329	
D-W계수		1.754		D-W계수		2.064	

\*\*\*p<.001

그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남편은 평균 2.74, 아내는 2.98점으로 나타나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총체적 가족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스트레스는 맞벌이아내가 남편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맞벌이아내가 남편보다 직업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데 따른 가족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음을 보였다.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를 영역별로 보았을 때 남편은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자녀역할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고 '가사관련 스트레스'와 '부부역할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반면 아내는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가사관련 스트레스'가 높고, '자녀역할 스트레스'와 '부부역할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본 결과를 통해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가 가족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영역이 '부모역할'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김소영, 옥선화, 2000; 김혜신, 김경신, 2003)와 일치하는 것으로 앞으로 맞벌이부부의 해결과제로서 부각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부부간에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인 '가사관련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두 영역 모두 아내의 스트레스가 남편보다 더 높게 나타나 맞벌이아내의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한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에 유의한 관련변인은 남편은 종교, 확대가족 유형이, 아내는 мам이의 연령, 직업, 가정의 월수입정도, 결혼지속년수, 결혼만족도 변인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은 5점 만점에 남편은 평균 3.41, 아내는 3.45로 높게 나타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남편은 '인지재구조화' 전략이 가장 높고, '정서적 지원' 전략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아내는 '인지재구조화' 전략은 남편과 같이 첫 번째로 높고 '취미활동' 전략이 가장 낮게 나타나 맞벌이부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전략이 '인지 재구조화'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유의한 관련변인은 남편은 교육수준, 직업,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으로 나

타났으며, 아내는 가정의 월수입정도, 확대가족 유형,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직업만족도는 5점 만점에 남편은 평균 3.72, 아내는 3.89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아내가 남편보다 직업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부부 남편의 직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아내의 직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변인은 '인지 재구조화' 대처전략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 맞벌이부부가 직장과 가족생활을 잘 병행하여 큰 스트레스 없이 잘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대상자들 주류가 교사나 연구직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어서 일반적인 맞벌이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고 자원이 많아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야 하므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가족스트레스 영역 중에서 1순위로 나타난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모든 맞벌이부부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므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맞벌이부부 관련 정책에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편과 아내가 인식차이를 보인 '가사관련 스트레스'에 관해서 맞벌이아내는 스트레스가 큰 데 비해 맞벌이 남편은 낮게 나타나 부부간의 갈등 측면을 암시하고 있어 앞으로 이 영역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연구과제로 보인다.

둘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은 높게 나타나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처전략으로 맞벌이남편과 아내가 모두 '인지적 재구조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에서 부부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취미활동'과 '정서적 지원' 대처전략은 남편은 바깥생활 중심으로, 아내는 심리적인 지원 요청의 행동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부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측면이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행동양상의 차이점을 밝혀 부부간의 이해를 도우고 부부관계를 활성화시키는 대

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맞벌이 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대한 유의한 변인은 몇 가지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변인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직업만족도는 높게 나타나 바람직하게 생각되었으며,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직업만족도의 가장 큰 영향변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은 남편과 아내의 인식 차이를 시사한다 하겠다. 특히 맞벌이아내의 직업만족도에 '인지재구조화' 대처전략이 나타난 것은 맞벌이아내의 가족생활 관리양상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이는 직업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맞벌이아내에게 어떠한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직업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따라서 맞벌이아내가 직장생활을 만족스럽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적용시키는데는 조사대상자들이 주로 교사 등 전문직종이 많아서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고정자, 김갑숙(1996). 맞벌이 부부의 직업관련 변수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4), 163-178.

구혜령(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신, 권오남(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29(1), 203-216.

김소영, 옥선화(2000). 기혼 남성의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 몰입 유형화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25-137.

김양호, 김태현(1998). 맞벌이 가족 남성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1), 81-94.

김태현, 김양호(2003). 중년남성의 남성역의식, 직장생

활 및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99-120.

김혜신, 김경신(2003).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3117-131.

서혜영, 이숙현(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257-280.

양순미(2003).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부부문제가 농촌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3), 31-49.

이현주(1997). 부부의 자아분화 정도와 갈등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희금(1999). 취업기혼여성의 일-가정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7(2), 145-158.

전영자(1997).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심리적결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339-355.

채 로, 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최정혜(2002).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및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49-60.

최정혜(2004).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69-83.

최혜경, 노치영(1994). 기혼남녀의 부부간 문제해결 행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62-272.

한경미(1995). 기혼취업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47-57.

한경혜(1998). 중년기남성의 역할중요도와 일/가족갈등. *가족과 문화*, 10(2), 93-113.

홍성례, 유영주(2001). 기혼남성의 가족·직업 역할중요도 인식과 역할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119-134.

Barnett, R. C., Marshall, Nancy L., & Peck, J. H. (1992). Men's multiple ro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men's psychological

-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May), 358-367.
- Beutell, N. J., & Greenhaus, J. H. (1983). Integration of home and non-home roles: Women's coping and conflict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8, 43-48.
- Ferree, M. (1976). Working class jobs: house work and paid work as sources of satisfaction. *Social Problems*, 23, 1185-1193.
- Galambos, N. L., & Sibereisen. R. K. (1989). Role strain in West German dual-career househol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2), 323-330.
- Heckman, N. S., Bryson, R., & Bryson, J. (1977). Problems of professional couples: A context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323-330.
- Kelly, R. F., & Voydanoff, P. (1985). Work/family role among employed parents. *Family Relations*, 34(3), 367-374.
- McCubbin, H. I., & Patterson, J. M. (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ion. In H. I. McCubbin, M. B. Sussman, & J. M. Patterson(eds). *Social stress and the family: Advances and developments in family stress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Haworth Press.
- O'Neal, R., & Greenberger, E. (1994). Patterns of commitment to work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role strai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101-118.
- Pleck, J. H. (1993). Are "Family-supportive" employer policies relevant to men? In J. C. Hood(Ed.), *Men, Work and Family*(pp.217-237). Newbury park, CA: Sage
- Thomas, S., Albrecht, K., & White, P. (1984). The determinants of marital quality in dual career couples. *Family Relations*, 33(4), 513-522.

(2005년 5월 6일 접수, 2005년 8월 23일 채택)

〈부록〉 요인분석 문항내용

문 항 번 호	문 항 내 용
36	나는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37	집안 일 관리가 힘들 때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한다.
38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미리 스케줄을 잡아둔다.
39	가끔씩 힘들면 나의 감정을 친구에게 터놓고 이야기한다.
40	생활스트레스가 쌓이면 운동을 하려간다.
41	나는 맞벌이 부부도 좋은 부모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42	집안일은 서로 협력해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3	생활에서 지치면 나의 감정을 배우자에게 터놓고 이야기한다.
44	스트레스가 쌓이면 취미활동시간을 갖는다.
45	나는 맞벌이 부부의 단점보다 좋은 점만 생각한다.
46	주말에 집안 일이 밀렸을 때는 가족이 역할을 분담해 서로 도운다.
47	힘들 때 나의 감정을 선배나 친한 이웃에게 이야기한다.
48	맞벌이 부부도 삶의 한 방식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49	우리부부는 집안일을 서로 잘 협력해서 행하고 있다.
50	힘들 때 생각할 시간을 갖거나 휴식을 통하여 불안감을 해소한다.
51	스트레스가 쌓이면 영화나 전시회 등을 보러간다.
52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참아야한다고 생각한다.